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9



#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2.12~2026.02.18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1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인구, 오영훈, 평가, 연휴, 투자
경제·관광	관광객, 연휴, 투자, 중소기업, 창업
지역·사회	연휴(명절), 투자, 범행, 졸업, 도로

※ 분석 기간 : 26.02.12.~26.02.1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원 선거구 확정 인구 기준일 확정</li> <li>- 도의원 의원 정수 현행 40명 유지 가닥</li> <li>- 지방선거 출마자, 인구 유입 및 저출산 공약</li> </ul>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 도지사 재선 도전 본격화 및 경선 대비</li> <li>- 오영훈 도정 운영 평가, 부정 여론 절반 상회</li> <li>- 4·3 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결정서 직접 전달</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도정 운영 여론조사 부정 평가 확산</li> <li>-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60% 상회</li> <li>- 대규모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 부정 평가 우세</li> </ul>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설 연휴 대비 5대 분야 종합대책 본격 가동</li> <li>- 여야 정치권, 설 연휴 민생 탐방 및 표심 잡기 총력</li> <li>- 설 연휴 맞춤형 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 개방</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2027년 연장</li> <li>- 제주시 대규모 공원 사업, 중앙투자심사 누락</li> <li>- 초기 창업기업 경영난 해소 특별보증 투자 확대</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 제주오름트레일런 흥행과 관광 효과</li> <li>- 제주 방문 관광객 지출 및 만족도 하락</li> <li>- 춘절 연휴 중국인 관광객 대거 방문 예상</li> </ul>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연휴 민관 합동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li> <li>- 설 명절 맞이 제주 곳곳 다채로운 행사 개최</li> <li>-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 연장</li> <li>-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모집</li> <li>- 호돈농협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국비 확보</li> </ul>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위변제율 전국 최고 수준</li> <li>-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 개선</li> <li>- 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촉구</li> </ul>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330억 원 규모 시행</li> <li>- 예비창업자 대상 해양수산 창업 지원사업 모집</li> <li>- 취·창업 준비 미취업 도민 직업훈련 비용 지원</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연휴(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연휴 공항의 만남과 이별 풍경</li> <li>- 고물가 속 공공 얼어붙은 명절 장바구니</li> <li>- 연휴 기간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0억 대 스포츠 역베딩 투자 사기 검거</li> <li>- 노후 자금 노린 가상화폐 폰지사기 의혹</li> <li>- 제주 반도체 트랙 장학금 지원 확대</li> </ul>
	범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털이 및 각종 비행 일삼은 10대 일당</li> <li>- 공무원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li> </ul>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안전 지킴 제40기 신입 소방공무원</li> <li>-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노인대학원 졸업식</li> <li>- 제주한라대학교 제55회 학위수여식</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도로 정비 및 포트홀 보수 추진</li> <li>- 도로 위 반사경 닦는 숨은 봉사자</li> <li>- 화물차 불법 행위 및 도로 안전 단속</li> </ul>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2월 12일~2월 1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485건임
  - 정치·행정 분야 233건, 경제·관광 73건, 지역·사회 179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인구, 오염, 휴, 평가, 연휴, 투자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로 잠정 결정하며 현행 32개 선거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함.</li> <li>· 이번 인구 기준일 결정에 따라 당초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제주시 삼양동과 봉개동 선거구는 인구 상한 기준 미달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 취지를 피하기 위한</li> </ul> </li> </ul>
-------	----	--

정치·행정	인구	<p>짜맞추기식 억지 기준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의원 의원 정수 현행 40명 유지 가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선거부터 일몰제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변동이 예상되었으나,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존 45명에서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통보받음.</li> <li>·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이나, 제주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정체 상황과 지리적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현실적으로 도의원 정수 증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li> </ul> </li> <li>- <b>지방선거 출마자, 인구 유입 및 저출산 공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민들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청년 인구 이탈 문제 대응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지역 현안으로 지목하였으며, 차기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li>· 이에 따라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소득 증대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청년층 정착 지원 확대, 저출산 해법 마련 등 인구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다양한 민생 밀착형 핵심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함.</li> </ul> </li> </ul>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영훈 지사, 도지사 재선 도전 본격화 및 경선 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의 가치와 성과를 기록한 정책 에세이집을 출간하며 사실상 차기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대림 및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당내 3파전 경선 구도를 본격적으로 형성함.</li> <li>· 최근 발표된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경쟁자들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직 도지사로서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경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본격적인 당심 및 민심 다지기에 돌입함.</li> </ul> </li> <li>- <b>오영훈 도정 운영 평가, 부정 여론 절반 상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전반적인 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의 절반 이상인 51.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며 긍정 평가 35.1%를 크게 웃도는 부정적인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 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지역 및 중장년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논란과 더불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li> </ul> </li> <li>- <b>4·3 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결정서 직접 전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는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된 채 살아온 고계순 유족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70여 년 만</li> </ul> </li> </ul>

<b>정치·행정</b>	<b>오영훈</b>	<p>에 친아버지와 가족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4·3위원회의 가족관계 정정 결정서를 전달하며 역사적 아픔을 깊이 위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결정은 4·3 특별법 개정 이후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한 첫 번째 결실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를 시작으로 국가 폭력에 의해 뒤틀린 도내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임.</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영훈 도정 운영 여론조사 부정 평가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51.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긍정 평가보다 16.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의 경제 활동 연령층에서 도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조사됨.</li> <li>·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배경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같은 주요 지역 갈등 현안 해결 미흡 및 교통 정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됨.</li> </ul> </li> <li>- <b>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60% 상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전체 응답자의 65.5%를 기록하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26.2%를 2.5배 이상 크게 앞지르는 등 오차범위를 벗어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입증함.</li> <li>· 특히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을 비롯하여 진보 성향 유권자 층에서 80%에 육박하는 전폭적인 긍정 평가와 지지가 확인되었으며, 보수 성향 유권자 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 정치적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국정수행 평가가 뚜렷하게 양극화되어 엇갈리는 양상을 띠고 있음.</li> </ul> </li> <li>- <b>대규모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 부정 평가 우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 버스 현안에 대해, 도민 절반 이상인 5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대규모 교통 인프라 정책에 대한 도민 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불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li> <li>· 현장 혼란과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와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50대 연령층에서 특히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행정당국은 충분한 시뮬레이션 검증 절차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제주도의회의 강력한 질타와 재검토 요구에 직면함.</li> </ul> </li> </ul>
	<b>연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도, 설 연휴 대비 5대 분야 종합대책 본격 가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민과 귀성객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 7개 반 1491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민생경제 안정, 재난 안전 관리, 교통 및 관광 편의 제공, 도민 불편 해소, 나눔 실천 등 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함.</li> <li>·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포인트</li> </ul> </li> </ul>

정치·행정	연휴	<p>적립률을 대폭 상향하고, 연휴 내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비상 응급 의료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와 긴급 민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여야 정치권, 설 연휴 민생 탐방 및 표심 잡기 총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 및 출마 예정자들은 설 연휴를 최대의 정치적 승부처로 삼고, 제주국제공항에서의 귀성객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주요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바닥 민심을 광범위하게 훑으며 치열한 현장 선거전을 펼침.</li> <li>·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의 밥상머리 대화에서는 차기 제주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 구도와 후보자들에 대한 날선 평가가 주된 화두로 떠올랐으며, 유권자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타개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차기 도정의 최우선 해결 과제이자 핵심 선택 기준으로 꼽음.</li> </ul> </li> <li>- <b>설 연휴 맞춤형 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 개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북부 해안가로 대량 유입된 불청객 평생이모자 반 수거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주요 해수욕장과 해안변 등에 전담 환경정비 인력을 전면 배치하여 신속한 폐기물 수거 작업과 해양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함.</li> <li>· 또한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의 휴식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주요 공영 주차장 시설을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서귀포시 도심 내에 새롭게 조성된 문화광장 공간을 한시적으로 임시 개방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 연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2027년 연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자본 유치와 통한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의 운영 기간을 기존 투자 금액 10억 원과 적용 대상 변동 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 현행대로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함.</li> <li>· 이번 투자이민제도 연장 조치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도내 관광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맞춤형 전략적 대응 조치임.</li> </ul> </li> <li>- <b>제주시 대규모 공원 사업, 중앙투자심사 누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가 총사업비 440억 원 규모의 한림 대림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심각한 행정적 엇박자와 소통 부재로 인해 예산 편성의 필수 사전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장기간 누락한 채 거액의 토</li> </ul> </li> </ul>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026 제주오름트레일런 흥행과 관광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6 제주오름트레일런 대회가 참가 신청 하루 만에 2000명 정원을 조기 마감하며 스포츠와 자연이 결합된 특화 관광 콘텐츠의 압도적인 흥행 성공 및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서의 막강한 발전 가능성을 입증함.</li> <li>· 지난해 첫 대회 당시 전체 참가자 중 약 80%가 제주 이외 지역 방문객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체류 기간은 3일에 달해 숙박 및 식음료 소비 등을 포함하여 약 26억 원 규모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됨.</li> </ul> </li> <li>- <b>제주 방문 관광객 지출 및 만족도 하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기준 제주 관광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역시 전년 대비 7.0% 하락한 961.3달러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지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남.</li> <li>· 지출 비용 감소와 더불어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내국인은 여행경비 부문에서 불만족을 나타냈고 외국인은 언어소통 불편과 비싼 물가 등을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꼽아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li> </ul> </li> <li>- <b>춘절 연휴 중국인 관광객 대거 방문 예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가장 긴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인 9일 동안 약 3만 49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항공편과 입도객 수가 모두 증가한 수치로 제주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춘절 특수 효과가 기대됨.</li> <li>·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도 증가에 따라 춘절 연휴 동안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객실 예약이 하루 최대 1590실에 달하며 사실상 만실 상태를 기록하였고, 이와 함께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 약 1만 3200명도 입항할 예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가 전망됨.</li> </ul> </li> </ul>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 연휴 민관 합동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주 도민과 방문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 227명 규모의 5개 분야 상황반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관광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함.</li> <li>· 관광객의 현장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맞춤형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기상악화로 인한 공항 체류객 발생 시 대중교통 연장 운행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 연락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함.</li> </ul> </li> <li>- <b>설 명절 맞이 제주 곳곳 다채로운 행사 개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주민속촌에서는 윷점 등 전통놀이 가족 대항전과 사진 촬영 이벤트를 운영하며, 국립제주박물관은 복합문화관 로비에 마련된 본향당</li> </ul> </li> </ul>

	연휴	<p>을 통해 새해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소원 빌기 행사를 정월대보름까지 진행하여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신화월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매직 쇼와 행운 부적 공방 등 다채로운 신화 포춘 스트리트 체험 행사를 제공하며, 본태박물관은 동반 방문 인원이 많을수록 최대 30%까지 입장료 할인율이 높아지는 특별 프로모션과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을 함께 운영함.</li> </ul> <p>- <b>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며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과 소상공인 가맹점 방문을 적극 독려함.</li> <li>·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역대 최대 캐시백 20% 적립 혜택을 집중 홍보하고 신규 카드 발급 현장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도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 주요 매장 방문을 통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 파악 및 체계적인 수급 관리 점검도 병행함.</li> </ul>
경제·관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기간 연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및 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 기간을 기존 2026년 4월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폭 연장하기로 결정함.</li> <li>· 제도 명칭 변경 및 기준금액 10억 원 상향 등 기존에 강화된 투자 기준과 대상 시설물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운영 기간만 연장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외국인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임.</li> </ul> </li> <li>- <b>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모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지역의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 특성을 활용해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돕는 2026년 해양수산 창업 및 투자 지원사업의 참여 예비창업자와 관련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하여 지역 핵심 미래 산업 생태계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임.</li> <li>·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 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지원, 기업육성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총 3개 분야 10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총 45건을 맞춤 지원하며, 단순 일회성 자금 투입을 넘어 우수 아이디어 발굴부터 판로개척까지 전주기를 뒷받침함.</li> </ul> </li> <li>- <b>효돈농협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국비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효돈농협은 과수 산지유통의 중심축을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기금으로 추진하는 2026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유통시설 신규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국비 58억 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함.</li> <li>·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로봇, 센서, 통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산지유통 거점을 마련해 유통 경쟁력을 극대화함.</li> </ul> </li> </ul>

<b>경제·관광</b>	<b>중소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지역 중소기업 대위변제율 전국 최고 수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중소기업들이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환율 등 악화된 경제 환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보증기관이 빚을 갚지 못한 기업을 대신해 상환하는 비율인 중소기업 대위변제율 부문에서 제주 지역이 8.46%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li> <li>· 2021년 이후 전국 기준 대위변제율이 3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제주의 높은 대위변제율 수치는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악화 및 자금난 한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구제책 마련이 절실함.</li> </ul> </li> <li>- <b>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경영안정자금의 용자 지원 기준 및 상환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식 입법예고함.</li> <li>· 기존의 단기 1회 2년 일시상환 제한 구조를 개편하여 원칙은 유지하되,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자기간을 2년 더 연장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간 균등하게 분할상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해 대환대출 등에 의존하던 기업의 부채 상환 압박을 획기적으로 낮춤.</li> </ul> </li> <li>- <b>제주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촉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소속 이사장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원 연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이 협동조합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조속한 개정과 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함.</li> <li>· 조합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민주적 선거와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검증된 리더십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타 경제단체와 동등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문턱을 낮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li> </ul> </li> </ul>
	<b>창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330억 원 규모 시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해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신생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0억 원 확대된 33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li> <li>· 지원 대상은 창업 1년 이내 기업과 3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으로 3000만 원 이내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창업 교육 이수 시간에 따라 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역량 있는 창업가 발굴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춘 우대 혜택을 다방면으로 제공함.</li> </ul> </li> <li>- <b>예비창업자 대상 해양수산 창업 지원사업 모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 및 연관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2026년 해양수산 창업 및 투자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 신생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집중 모집함.</li> </ul> </li> </ul>



지역·사회	연휴(명절)	<p>비는 등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애뜻한 풍경이 연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설 연휴 기간(13일~18일) 동안 약 24만 5천 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연휴 마지막 날에는 귀경 차량이 공항 진입로에 길게 늘어서고 탑승 수속 창구에 긴 줄이 형성되는 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인파로 혼잡을 빚음.</li> </ul> <p>- <b>고물가 속 공포 얼어붙은 명절 장바구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명절 대목을 맞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제수용품 구매하려는 도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으나,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인해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은 많지 않았으며, 방문객들은 치솟은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거나 가격 흥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임.</li> <li>· 제주 지역 제수용품으로 인기가 높은 옥돔과 삼치 등의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옥돔 1마리에 최대 10만 원까지 거래되는 등 차례상 준비에 대한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준비했던 상인들은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과 닫힌 지갑에 한숨을 내쉬며 어려움을 토로함.</li> </ul> <p>- <b>연휴 기간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연휴 기간 제주시 조천읍 주택, 노형동 폐기물 처리장, 서귀포시 표선면 오두막 등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다행히 거주자들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소방 당국의 빠른 진화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주택 내부와 재활용 폐지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소방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섬.</li> <li>· 연휴 첫날 제주국제공항 3층 고가도로에서 30대 중국인 여성이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에서는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후 사망하는 등 명절 연휴 기간 도내에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잇따름.</li> </ul>
	투자	<p>- <b>270억 대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 검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유명 리조트 회사를 사칭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역으로 베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38명으로부터 약 270억 원을 가로챈 'GM' 조직의 핵심 조직원들이 태국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 후 구속되었으며, 확인된 피해자 중 절반가량인 400여 명이 제주 도민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줌.</li> <li>· 이들은 승패 예측이 쉬운 약팀에 베팅하도록 유도해 초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늘리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했고,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거나 외제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과 명품 등을 압수하고 계좌 지급을 정지함.</li> </ul> <p>- <b>노후 자금 노린 가상화폐 폰지사기 의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지역의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특정 코인이 곧 상장될 것이라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실제로는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출금이 중단되는 대규모 폰지사기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li> </ul>

	<b>투자</b>	<p>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고통을 호소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의혹을 받는 조직은 '사랑방'이라는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300여 명의 투자자를 관리하고 제주시 내에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개최하며 투자를 부추겼으나, 출금 지연 사태 이후 운영진이 잠적하고 사무실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전형적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이 포착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됨.</li> <li>- <b>제주 반도체 트랙 장학금 지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주)제주반도체가 '제주반도체트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13명에게 총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기반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이는 2006년부터 21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누적 장학금이 4억 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짐.</li> <li>· 기존 전자공학과와 통신공학과 학생들로 한정되었던 장학금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인공지능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물리학과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제주 지역 내에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함.</li> </ul> </li> </ul>
<b>지역·사회</b>	<b>범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차량 털이 및 각종 비행 일삼은 10대 일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고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만을 골라 침입해 현금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중학생 등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직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대담한 범죄 행각을 벌임.</li> <li>· 이들은 차량 털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식당에 비치된 '사랑의 모금함'을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심지어 주차된 전기차의 창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각종 비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주범인 중학생 A군이 구속되고 공범들은 검찰에 송치됨.</li> </ul> </li> <li>- <b>공무원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li> <li>·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정당한 법 집행인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며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li> </ul> </li> </ul>
	<b>졸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민 안전 지킴 제40기 신입 소방공무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문화관에서 열린 제40기 신입 소방공무원 졸업 및 임용식에서 24주간의 강도 높은 화재·구조·구급 훈련을 마친 39명의 새내기 소방관들이 배출되었으며, 가족들이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오영훈 지사의 격려 속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딤.</li> </ul> </li> </ul>

<b>지역·사회</b>	<b>졸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날 임용된 신입 소방공무원들은 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등 도내 각 소방관서의 최일선 현장에 즉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오영훈 지사는 이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안전 확보를 약속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줄 것을 당부함.</li> <li>- <b>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노인대학원 졸업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설 노인대학원에서 제24기 졸업식이 열려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81명의 어르신이 영예로운 졸업증서를 받았으며, 이번 졸업식에는 주요 내빈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과정을 마친 만학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함.</li> <li>· 노인대학원은 시사, 법률, 건강관리 등 전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노후 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졸업생들은 단순한 돌봄의 대상을 넘어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리더로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봉사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함.</li> </ul> </li> <li>- <b>제주한라대학교 제55회 학위수여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55회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541명, 전문학사 607명 등 총 1,14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관광일본어과를 졸업한 80세 오세향 씨가 최고령 졸업자로 이름을 올리며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몸소 보여주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됨.</li> <li>· 김성훈 총장과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졸업생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주역임을 강조하며 격려했고, 각 학과 수석 졸업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함.</li> </ul> </li> </ul>
	<b>도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후 도로 정비 및 포트홀 보수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상반기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북로, 연삼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18개 노선에 대한 포장 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노후화된 도로와 겨울철 제설 작업 등으로 발생한 포트홀 및 균열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주행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계획임.</li> <li>·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동·서부 지역별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4월 말까지 긴급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매년 증가하는 도로 파손 민원과 노후 도로 관리를 위해 추경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도로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임.</li> </ul> </li> <li>- <b>도로 위 반사경 닦는 숨은 봉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한경면 등지에서 도로변에 설치된 반사경과 버스정류장 등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손다진 씨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으며, 그는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에 틈틈이 더러워진 공공시설물을 닦아내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li> <li>· 부엌던 반사경이 청소 후 선명해지며 도로 상황이 잘 보이게 되는 등 실제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러한 선행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거창한 봉사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역 사회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됨.</li> </ul> </li> </ul>

지역·사회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차 불법 행위 및 도로 안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제주시 한림항 입구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 기준 위반 18건, 불법 튜닝 1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는 도로 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li> <li>· 단속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과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도로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임.</li> </ul> </li> </ul>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